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를 읽고

권오경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나는 경제적 기아나 선별 작업이나 토마스 멜서스와 같은 책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이 책의 저자 장 지글러는 스위스 태생의 사회학자이다. 사회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기아문제 연구자이다. 저자는 시장 자본주의와 이해 관계 충돌, 유렵 사민주의의 실패, 부의 불균형, 인프라와 같은 것에 비중을 많이 둔다. 나는 작가가 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독자들에게 기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질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옛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가난은, 그리고 이에서 오는 기아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아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만큼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할까. 나는 여기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글러는 기아에 대하여 논하면서, 군벌 혹은 강대국이나, 글로벌 기업과 같은 기아 당사자가 아닌 그 외적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한다. 그들이 기아를 만들고 악화시키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해결책을 논하면서, 선진국이나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들은 기아를 겪을 일이 없는 제3자이다. 이 제3자라는 것이 내가 위에서 말한 기아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이다. 그들에게는 기아는 간접적인 문제다. 남의 문제다.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들은 이득이 없다. 기아가 지속된다고 해도 손해볼 것도 없을 것이다. 속해 있는 개개인은 한순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질 수 있겠지만 금세 잊어버릴 것이다. 책에서도 말하듯,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양심의 심리적 기능이 있으니까.

 지글러는 말한다.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지원을 전달할 인프라도 필요하다. 너무나 큼직큼직한 거시적인 문제라서 시민 개개인은 손댈 수가 없다. 하지만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강대국이나 거대 기업, 국제 기구들은 구세력의 저항이나 자금 부족, 자원 및 지원 미비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거대한 문제의 거대한 주체의 거대한 실패다. 나는 시민 개개인이 궁극적으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들을 움직이는 것은 시민이다. 시민의 관심이, 투표가, 거대한 주체를 움직인다. 이 움직임이 지글러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